

점이다.

어미돼지의 22%를 이 규모의 농장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벨기에의 양돈산업이 더욱 전문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서부 프레미쉬 지방이 벨기에의 양돈 주산 단지인데 1970년엔 벨기에 총 돼지의 76%를 생산했었고, 서부 프레미쉬 지방에선 70년에 전체 돼지의 34

%, 82년엔 42%를 생산했다.

또하나의 특징은 돼지생산량의 3분의 1을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로 수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벨기에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1960년대에 평균 25kg선이었고 70년대에 36kg, 82년엔 48kg을 나타냈다. (근작 외지에서) □

미국 수돼지 전람회(NBS)에서 집중 인기

올해 미국의 국립 숫돼지 전람회(National Barrow Show)에 숫돼지의 40%가 집중이었고 이숫자는 작년보다 12%나 상승한 것이다. 그 이유는 과거에 순종만을 찾던 사육가가 잡종을 원하기 때문이다. 등록된 혈통은 매년 미네소타주 오스틴(Austin)에서 열리는 전람회에 출품한 품종이어야 하고 잡종은 순종에 의해 교배된 것이어야만 한다.

지난 5월 4일 미네소타주 뉴 알름(New Ulm) 검정소에 입식된 두수는 순종 잡종을 합해 774두(아래도표 참조)였다. 이 중 24두는 거세를 너무 늦게 했거나 질병에 감염되었던 것으로 여겨져 도태시켰고, 37두는 너무 체중이 적게 나가 도태시켰으며 25두는 일당 증체량이

미달하여 도태시켰다. 검정소 소장 허블리(Hubly)씨는 특히 잡종은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품종	구분	마릿수	평균개시체중	평균일당증체량
버크셔	크셔	31	52	.732
체스터화이트		61	56	.785
듀록		91	55	.775
햄프셔	프셔	62	55	.792
랜드레이스		30	58	.826
폴란드차이나		34	59	.852
스포티드		45	57	.806
요크셔	크셔	59	52	.737
잡종		270	58	.818
평균		683	56	.791

(근작 외지에서)

오스트리아 84년에 돼지생산고 증감

독일 농업통계에 의하면 1984년에 오스트리아는 68만두를 도축할 전망이어서 5% 증가를 예상하고 있지만 오스트리아의 83년 12월 센서스에 의하면 총 돼지사육두수가 2.8%, 번식돈은 1.3%가 각각 감소한것으로 밝혀졌다.

오스트리아의 돼지두수는 1981년 12월 4백 1만두, 82년 398만 1천두, 작년 387만두로 감소해왔다.

어미돼지수는 396천두에서 386천두로 또 381천두로 비슷한 경향으로 줄어들었다.

폴란드 돼지고기 증산 강조

1983년 2/4분기에 알맞은 회복세에 들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1983년말에 135만톤으로 82년에 비해 11% 감소했다.

1984년 1월 돼지사육두수는 1천79만두로 3% 감소했음이 보고되었고,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한 예측자에 의하면 6%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축생산을 위해 사료재고품의 이용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폴란드 정부 정책으로 1984년초에 새로운 수단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옛날에는 도입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 수단의 적당한 효율성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